

발제문

역사 갈등 해소를 위한 환황해권 전략

— ‘환황해권 축제’로서의 백제문화제와
지역 민간 교류 사례를 중심으로 —

윤용혁

공주대학교 명예교수

1. 환황해 동아시아 문화권의 갈등 요소
2. 백제문화와 ‘환황해권 축제’로서의 백제문화제
3. 사례, ‘무령왕네트워크’와 ‘이삼평연구회’
4. 21세기 ‘환황해권’의 발전을 위하여

환황해 동아시아 3국은 그 지리적 관계상 서로 깊은 관계를 가지면서 역사를 지속하여 왔다. 때로는 전쟁과 분쟁이 이 동아시아 세계를 지배하기도 하였지만, 문화의 교류와 전수 혹은 경제적 상호 관계에 의하여 3국의 역사는 고대 이래 서로 깊이 연결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19세기 후반 이후 1세기 동안 일본의 근대화와 제국주의에의 노선은 ‘동아시아 세계’를 파괴하였고 희생과 비극의 역사를 기록하였다. 그것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동아시아 각국에 무거운 역사적 부담으로 남아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 앞으로의 21세기는 동아시아 세계의 복원과 새로운 관계 구축을 통한 상호 발전과 공존의 방향 모색이 중요한 과제가 되어 있다. 이러한 과제에도 불구하고 역사 문제 혹은 영토 문제 등의 갈등 요소는 환황해 동아시아권의 새로운 도정에 걸림

돌이 되어 있다. 이같은 걸림돌은 기본적으로는 국가 레벨의 문제인데다 갈등의 요소가 워낙 심층에 축적되어 있어 단기간에 그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환황해 평화공동체’ 구상은 지방정부와 민간 차원에서의 3국 협력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왕의 논의와는 다른 의미가 있다.¹⁾ ‘환황해권’의 범위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지만²⁾, 충청남도는 이 권역의 핵심 지역에 포함되어 있어 이를 지역 발전의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충남 주도의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³⁾

본고에서는 환황해권 동아시아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갈등 요소인 역사 문제를 간략히 점검하는 한편으로, 시민 교류의 레벨에서 환황해권 동아시아 각국 시민의 상호 이해를 증진 시키는 방안을 충청남도에서의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역사 문제를 둘러싼 논의는 정부 간 협의가 중요한 것임을 부정할 수 없지만, 동시에 민간 레벨에서의 활동, 혹은 지자체 레벨에서의 관심도 필요하다는 전제에 의한 것이다.

1. 환황해 동아시아 문화권의 갈등 요소

한국의 근현대사는 중국 중심 동아시아 질서의 붕괴, 일본의 제국주의 노선 추구에 의한 식민지 지배와 군국주의화, 미국과 소련간의 냉전 체제 등, 급격한 외부 환경 변화 속에서 전개 되었다. 근, 현대에 있어서 이같은 대외적 환경의 변화와 동아시아 세계의 변동 속에서 20세기 한국은 가장 심각한 피해자의 입장, 혹은 첨예한 대결의 접점(接點)이 되어 왔다.

동아시아 평화세계의 새로운 구축을 위해서는 역사교육, 역사인식의 상호 공감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되어 있다. 이미 여러 차례 뜨거운 문제로 부각된 바

1) 김성환, 「환황해 평화공동체 구상 -한국의 시각에서」 『제2회 환황해 포럼』, 충청남도, 2016, p.3

2) 국토해양부의 안(2011)에 의하면 ‘환황해권’ 협의의 범위는, 한국의 경기·충남·전북·전남·제주, 중국의 허베이성(하북성)·랴오닝성(요령성)·산둥성·베이징·톈진, 일본의 후쿠오카로 설정하고, 광의의 범위로서는 한국의 경남과 중국의 장쑤성(강소성)·저장성(절강성)·상하이, 일본 규슈의 7개현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하였다.(송두범·홍원표, 「환황해권 시대의 도래와 충남의 미래」 『환황해권 시대 충남의 미래』(심포지엄 자료집), 충남연구원, 2015, pp.16-21) ‘동아시아’가 흔히 한중일 3국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하여 ‘환황해’는 지역간 네트워크의 개념이 강하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읽을 수 있다.

3) 송두범·홍원표, 위의 논문, pp.58-60 참조.

있는 일본 역사교과서 문제 이외에도 중국의 이른바 ‘동북공정’의 문제는 역사교육의 상호 공감을 위한 노력이 얼마나 어려운 과제인지 그리고 중요한 과제인지를 동시에 제기하고 있다.

역사교과서 문제는 역사교육을 통하여 미래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에게 왜곡된 역사인식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역사교과서에서의 한국사 관련 서술,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에 대한 서술에서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직시할 수 있는 객관적 서술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인 것이다. 이같은 출발선에서의 역사 인식 정리는 환황해권 동아시아 세계의 재구축을 위한 기본적 전제가 된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1993년 일본의 고노(河野洋平) 장관과 무라야마(村山富市) 총리는 담화를 통하여 일제의 침략 전쟁과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와 반성을 표명하였다. 역사교육을 통하여 동일한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역사의 교훈을 통하여 “인류사회의 평화와 번영의 길을 그르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같은 정신이 실제에는 계승, 반영되고 있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근년 일본의 역사교과서 서술에 있어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기술은 일본의 역사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고노, 무라야마 담화의 정신이 역사교과서에 반영되어 1993년, 1994년 검정을 통과한 중학교 역사교과서 7종, 고등학교 일본사(A/B) 23종중 22종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기술을 포함하였다.⁴⁾ 그러나 이에 대하여 이를 ‘자학사관’으로 공박하는 우익의 집요한 공격이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 역사 인식 및 교과서의 기술에 있어서 후퇴를 거듭하였다.⁵⁾ 이후 일본 사회 전체의 우경화 경향에 의하여 2011년 위안부에 대한 기술은 대부분의 역사 교과서에서 자취를 감추었다.⁶⁾

‘위안부’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한국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2006년(9월)부터 2016년(6월)까지 10년 간 120편 논문이 발표되었다. 관련 자료

4) 남상구, 「일본 교과서 문제의 경위와 실태」 『한일관계사연구』 54, p.371

5) 남상구, 「일본 역사교과서 일본군 ‘위안부’ 기술 변화」 『한일관계사연구』 30, pp.325-339

6)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술은 중학교 역사의 경우 2005년 8종중 2종으로 감소하고 2011년에는 전 교과서에서 삭제되었다. 다만 2015년 검정에서는 学び社 발행 역사교과서에 기술되었다. (남상구, 앞의 「일본 교과서 문제의 경위와 실태」, p.372)

의 수집도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이에 의하여 ‘위안부’ 제도의 강제성과 일본군·정부의 책임을 규명함으로써 현안의 문제 해결을 위한 진전을 보였다.⁷⁾

독도와 관련한 영토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은 경화된 입장을 강화해 왔다. 교과서 집필의 기준이 되는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는 2008년에 “우리나라(일본을 가리킴)와 한국 사이에 다케시마에 대한 주장에 차이가 있다는 점 등에 대해서도 취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2014년에는 ‘고유의 영토인’ 다케시마(독도)가 “한국에 의해 불법 점거되어 있고” 이 문제에 대해 “한국에 누차에 걸쳐 항의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정확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⁸⁾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도 일본인의 역사 인식을 기증하는 하나의 징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1985년 나카소네(中曾根康弘) 총리의 공식 참배를 계기로 그것이 일본의 침략 전쟁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이후 고이즈미 총리는 재임 기간 6회에 걸쳐 참배를 하였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곳에 A급 전범 14명이 ‘소화순난자(昭和殉難者)’라는 명목으로 합사(合祀)되어 있기 때문이다.⁹⁾ 한국에 대한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거나 옹호하는 보수 우익 정치인들의 잇따른 ‘망언’은 이같은 인식과 궤를 같이하고 있는 것이다.¹⁰⁾ 특히 북핵 등으로 인한 ‘안보 위기’를 빌미로 이러한 국가주의적 인식은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한국에 있어서 중국과의 관계는 수교 이후 급격한 관계 진전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는 가장 밀접한 인국으로서의 위치를 갖게 되었다. 중국과 한국의 급격한 관계 진전이 말해주는 것은 동아시아 3국의 상호 협력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단적으로 입증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동북공정’으로 대표되는 역사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있고, 특히 북한 문제 혹은 미국과의 관계를 둘러싼 국제 정치 구도 속에서 현실적으로 갖는 한계점도 확인되고 있다.

7) 서현주, 「2006~2016년간 일본군‘위안부’ 연구의 성과와 전망」 『동북아역사논총』 52, 2016

8) 남상구, 「일본 교과서 문제의 경위와 실태」, p.381

9) 남상구, 「야스쿠니신사 문제의 현황과 연구 동향」 『동북아역사논총』 50, 2015 참고.

10) 이종국, 「일본 보수 정치인들의 역사인식과 역사적 전개」 『동북아역사논총』 51, 2016

‘동북공정’은 2002년부터 5년간에 걸쳐 중국 사회과학원 산하 중국변강연구소에서 추진한 역사 관련 사업으로서, 특히 고구려사, 넓게는 고조선과 발해의 역사까지 중국의 범주에 포함하여 재정리하는 것이었다. 이에 의하여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에 해당하는 국가주의 역사관을 동북지역에 적용하는 정치적 요소를 담고 있었다.¹¹⁾ 역사 문제가 갈등의 초점이 되면서 이를 정치쟁점화 하지 않고 학술연구에 맡긴다는 2004년 정부 간 합의가 이루어지고, 2006년에는 한중 정상 간에 이 합의를 준수한다는 약속이 이루어짐으로써 논쟁은 일단 진정 국면에 들어섰다.¹²⁾ 표면적 논쟁은 진정되었지만 이 같은 역사관이 중국의 현실 인식에 대한 정책적 입장에 근거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내면에 잠복하여 움직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역사 문제 해소를 위한 국가 간 논의는 필요한 것이지만, 보다 객관적이며 현실성이 있는 논의의 진전을 위해서는 시민 사회의 역량을 모으고 이를 토대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아울러 지자체 레벨에서 다양한 기회를 통하여 환황해권의 여러 지역간 상호 인식을 심화하고 현장에서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2. 백제문화와 ‘환황해권 축제’로서의 백제문화제

1) ‘환황해권’ 기반으로서의 백제문화

2015년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다. 이 유적의 등재가 가능했던 것은 백제유적이 갖는 ‘동아시아적 가치’에 있었다. 환황해를 연결하는 동아시아 세계 건설에 중심적 역할을 한 백제의 역사적 위치에 대한 국제적 공인인 셈이다. 백제는 불교문화를 중국으로부터 받아들여 일본에 전수하였다. 불교는 단순한 정신적 가치의 공유에 그치지 않고 첨단 기술에 의하여 뒷받침된 건축, 공예, 미술, 과학 등 각종의

11) 윤명철, 「동북공정의 배경과 21세기 동아시아 신질서의 구축」 『단군학연구』 10, 2003; 김남철, 「역사교육에서의 ‘동북공정’과 민족주의」 『역사교육』 95, 2005 등 참고.

12) 동북공정의 주요 내용에는 고대 중국의 변경에 대한 연구, 동북지방사연구, 동북민속사 연구, 고조선·고구려·발해에 대한 연구, 한반도의 국가 기원과 발전에 대한 연구 107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 56개 과제가 한국과 관련된 것이며, 고구려·발해 관련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조운경, 「동북공정논쟁 이후의 한중 양국의 인식 차이에 대한 비교 연구」 『중국학』 31, 2008, pp.567-569

문화적 유산을 함께 공유하게 하였다. 그것이 바로 동아시아 문화권 형성의 기초가 되었던 셈이다.¹³⁾

백제문화는 기본적으로 토착문화와 외래문화의 결합이라 할 수 있다. 백제 지배층의 주류가 고구려 계통이었다는 점, 백제문화의 발전에 중국의 선진 문화가 크게 기여하였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토착문화의 고유성, 외래문화의 보편성을 결합하여 새로운 문화발전을 이룩한 것이 백제문화였다는 것은 우리 시대의 문화 발전에도 교훈을 준다. 백제문화의 중심에 있는 백제 미술은 ‘자연미’를 특징으로 하며, 부드럽고 섬세한 백제인, 충청인의 심성(心性)이 반영된 것이었다.

백제는 원래 한성을 도읍으로 하고 있었지만, 고구려의 압력에 의하여 475년 충남권의 공주로 천도한 후 538년 부여로 천도하여 660년 신라와 당의 연합군에 의하여 멸망하였다. 백제문화가 꽃피워 특히 주변국에 특히 많은 영향을 준 것은 충남에 도읍하고 있던 약 2세기 간의 일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백제문화는 충청남도의 역사적 정체성의 기반이기도 하였다.

백제문화의 제반 내용 가운데 특히 이를 대표하는 것이 무령왕(재위 501-523)과 무령왕릉이다. 무령왕은 서기 471년(혹은 472) 일본의 가카라시마(加唐島, 佐賀縣 唐津市 소재)에서 태어나고 즉위 이전 상당 기간을 오사카 지역에서 생활했을 것으로 추측되는 인물이다. 재위 중에는 중국 양(梁)과의 활발한 교류에 의하여 선진 문물 도입에 적극적이었으며, 약화된 백제를 다시 회복시킨 인물이다. 1971년 발견된 그의 왕릉에서는 중국 양으로부터 도입된 문물이 다수 발견되었으며, 일본의 것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그가 ‘환황해권’을 무대로 백제의 위상을 제고했던 역사적 인물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무령왕대 중국의 양의 서울은 장쑤성(강소성)에 위치한 현재의 남경이다. 그리하여 무령왕대의 교류는 중국 남경과 충청남도과 일본 사가현 및 오사카를 잇는 ‘환황해권’의 실재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13) 백제문화유적지구 통합관리위원장 노중국 교수는 백제문화유적지구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고대 동아시아에서 문화교류를 잘 보여주는’ 유적, ‘문화적 전통과 문명에 관한 독보적 증거가 되는 유적’으로 규정하였다. (노중국, 『백제역사지구의 세계유산적 가치』 『백제역사지구 세계유산 등재기념 학술회의』(발표 자료집),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15, p.23)

2) ‘환황해권’ 축제로서의 백제문화제

2017년 9월 28일부터 10월 5일까지 8일간 제63회 백제문화제가 공주와 부여에서 동시에 개최되었다. 금년의 백제문화제는 공주에서 개막식을, 부여에서 폐막식을 거행하였으며, 개막식에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직접 참석하여 축사를 하였고, 주한 일본대사와 중국대사가 참석함으로써 동아시아, ‘환황해권’ 축제로서의 백제문화제의 성격을 잘 보여주었다.¹⁴⁾

백제문화제가 시작된 것은 1955년 부여 백마강변에서였다. 6.25 전쟁을 통하여 겪은 역사의 아픔이 1천 3백년 후 백제 땅에서, 백제 역사의 아픔을 느끼게 한 것이었다. 10년이 지난 1965년에는 공주에서도 백제문화제를 함께 열게 되었다. 이 백제문화제는 지금까지 지속되어 한국에서는 가장 오래된 연륜의 근대 역사축제로 꼽히고 있다. 백제문화제의 정체성과 근거는 1천 5백 년 전 고대왕국 백제에 있다. 고대 한반도의 3국 가운데 ‘가장 강하고, 가장 문화가 발달했던 나라’로 칭해지던 백제는 660년 갑작스러운 멸망을 맞는다. 너무 갑작스러운 것이었고 그 결과가 참담한 것이었던 때문에 백제 멸망의 한(恨)은 후대 사람들의 기억에 생생히 남겨지게 되었다. 낙화암과 ‘삼천궁녀’ 이야기도 말하자면 그러한 한(恨)의 내림이었다.

2007년 재단법인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가 설치되고, 부여·공주 통합 개최가 실현된다. 충남의 대표 축제로서 동시에 동아시아 여러나라의 국제적 소통의 장으로서 백제문화제의 새로운 단계의 진입이었다. ‘환황해권’ 중심으로서의 충청남도의 역사적 정체성을 확인하는 장으로서 백제문화제는 공인된 것이다. 이후 백제문화제의 ‘통합 개최’는 통일적 구도를 가지고 부여·공주 두 지역에서 동시에 개최하되, 기획과 운영에는 충청남도가 직접 참여하는 것이었다. 백제문화제가 3개의 기초 및 광역 자치단체의 연합으로 개최된다는 것은 다른 많은 축제와 차별화되는 백제문화제만의 특성이며, ‘백제’를 역사적 고리로 하여 ‘환황해권’을 지향하는 축제로서의 기본을 조성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백제문화제의 ‘세계화’라는 측면에서 최근 수년 동안 백제문화제는 특히 일본을 중심

14) 백제문화제가 갖는 국제교류의 장으로서의 특성에 대해서는 윤용혁, 「공주, 동아시아 국제교류」 『공주학강좌』, 공주학연구원, 2015, pp.192-194 참조.

으로 국외 축제 조직위원회와도 밀접한 관계 형성에 노력해왔다.¹⁵⁾ 2007년 이후 백제 문화제에서 동아시아 교류 거점으로서의 백제가 끊임없이 강조되어 동아시아 축제로서의 특성을 강조해 왔던 것은 사실이지만, ‘환황해권 축제’라는 지향점이 명확하게 설정된 적은 없다. 2017년은 통합 백제문화제로서 10회를 넘긴 시점이고, 백제문화제의 새로운 비전을 정립하여 재출발해야 하는 시점이 되었다. 백제문화제의 정체성을 재확인 하면서 새로운 출발점으로서 삼을 수 있는 지향점이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백제를 고리로 한 ‘환황해권 축제’이다.

백제는 7백년 역사 속에서 여러 차례 수도를 옮겼다. 이 때문에 백제 관련 축제는 공주부여 이외에도, 서울(송파구), 익산(전북), 영암(전남) 등 여러곳에서 매년 이루어지고 있다. 백제 관련 축제는 일본에서도 개최되고 있다. 오사카의 왓소축제, 히라카타(枚方)의 백제페스티벌, 가라츠시 가카라시마에서의 무령왕탄생제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배경을 이용하여 백제문화제가 ‘환황해권’을 연계하고 동아시아 여러 나라의 민간 교류를 촉진하는 중심의 장이 되도록 구체적으로 실천해가는 것은 통합백제문화제 향후 10년의 비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007년 ‘통합 백제문화제’ 이후 이를 견인하는 동력으로서 개최된 것이 2010년 1개월 동안에 걸치는 메가이벤트로서 ‘세계대백제전(世界大百濟展)’이었다. 백제문화권개발사업의 결정물이라 할 ‘백제문화단지’가 17년 만에 부여군 규암면에 완성되어 개관한 것도 이때였다. 이후 ‘세계대백제전’은 경주의 신라문화엑스포와 함께 대표적인 역사재현형 메가이벤트로 꼽히게 되었다.¹⁶⁾ 그로부터 10년 후의 ‘제2기 세계대백제전’ 개최에 대한 논의가 부여와 공주에서 시작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제2기 세계대백제전’의 컨셉을 ‘환황해권 축제’로서의 백제문화제가 그에 대한 하나의 방향이 된다. 2017년부터 향후 10년을 ‘환황해권 축제’로서 백제문화제를 발전시켜 가자는 것이다.

‘환황해권 축제’로서의 백제문화제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제2기 ‘세계대백제전’의 개최가 필요하다. 이에 적당한 시점은 2021년이다. 서기 521년 무령왕은 양(梁)에 사신을

15) 백제문화제의 세계화에 대해서는 윤용혁 「2010년 세계대백제전 세계화의 과제」 『충청학과 충청문화』 9, 2009 참조.

16) 류정아 『축제의 원칙』 커뮤니케이션북스, 2012, pp.102-104

보내면서, 백제가 여러 번 고구려를 깨뜨려 “다시 강국이 되었다(更爲強國)”는 이른바 ‘개위강국’ 선언을 하고 있다. 백제가 고구려에 대응할만한 국력과 자신감을 완전 회복한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538년 성왕에 의한 부여 천도의 예고이기도 하다. 2021년은 무령왕의 ‘개위강국 1500년’이 되는 해이다. 다른 한편 2021년은 백제 세계유산의 핵심유적인 무령왕릉이 발굴된 지 5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개위강국’, 그리고 ‘무령왕릉 발굴 50년’의 의미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황해권 축제’로서의 제2기 ‘세계대백제전’ 개최의 적기는 2021년이 된다.

3. 사례, ‘무령왕네트워크’와 ‘이삼평연구회’

1) 무령왕네트워크

백제의 인물 가운데 1500년 전 백제 25대 임금이었던 무령왕은 21세기 동아시아 세계에서 특별한 점이 있다. 고구려에 의하여 멸망의 위기에 처한 백제를 다시 살린 뛰어난 업적을 남긴 임금이기도 하지만, 환황해권을 하나의 세계로 엮는 동아시아 문화권 형성에 지대한 역할을 한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환황해’에 걸치는 무령왕의 세계는 1971년에 발견된 그의 무덤에서 현실로서 입증되었다. 뛰어난 백제의 문물에, 그가 묻혀있던 무덤은 중국 남조 양식의 벽돌무덤이었고, 그가 왕비와 함께 누워진 관은 일본에서 보낸 목재로 제작된 것이었다. 무령왕릉은 곧 고대 ‘동아시아 세계’, ‘환황해권’이었던 셈이다.

2001년 무령왕릉 발굴 30주년을 계기로 가라츠와 공주의 두 무령왕 민간단체가 교류를 시작 하였다. 2002년에 처음 열린 무령왕 탄생제에 공주 사람들이 참석하고, 가을에 열리는 공주의 백제문화제에 가라츠 사람들이 참석하면서 이 교류는 곧 정례화 되어 금년 2017년에 16년의 역사를 축적하게 되었다. 매회 30명 전후의 규모로 매년 시민 레벨의 정기적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공주의 단체는 ‘무령왕국제네트워크협의회’(회장 정영일)¹⁷⁾, 가라츠의 단체는 처음 ‘친제이쵸 무령왕 실행위원회’에서 지금은 ‘마쓰

17) 가라츠와의 교류는 처음 공주향토문화연구회와 이루어졌으나, 교류가 진행되면서 2004년에 ‘무령왕국제네트워

로 ‘쿠다라무령왕국제네트워크협의회’(회장 미야자키 다카시, 宮崎 卓)이다.

무령왕국제네트워크의 가장 중요한 사업은 무령왕의 탄생지로 알려진 가카라시마(사가현 가라츠시 소재)의 무령왕탄생제에 참가하는 일이다. 6월 첫째 주 주말에 열리는 무령왕축제는 올해로 16회를 기록하였다. 공주에서는 2002년 이후 2017년까지 도합 16년 간 매년 30명 내외의 시민 방문단이 가카라시마 교류에 참가하였다. 간단히 계산하면 16년 간 연인원 500명, 가라츠를 포함하면 대략 1000명에 가까운 인원이 가카라시마와 공주를 상호 방문하고 교류 행사에 참여한 셈이다.¹⁸⁾ 9월에는 가라츠가 중심이 되어 백제문화제 참가단을 파견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상호 방문의 국제교류가 이루어진다. 백제문화제의 가라츠 방문단은 무령왕이 모셔지는 사왕추모제(四王追慕祭)에 참석하고, 사왕추모제에 앞서 〈무령왕, 별과 노래와 시〉라는 프로그램을 가라츠 팀과 함께 진행한다.¹⁹⁾

2006년 가라츠 시민과 공주 시민 공동의 가카라시마 무령왕 기념비 건립은 무령왕을 통한 국제교류 사업에 중요한 기점이 되었다. 기념비는 여러 차례 우여곡절을 거쳐 공주에서 제작하여 운반, 가카라시마 항구 현지에 건립되었다. 비용은 양측 시민의 공동 모금에 의존하였고 소요 비용은 분담되었다. 3.4m 높이의 기념비(설계 김정헌)는 무령왕릉의 아치와 전벽(塼壁)의 디자인을 취하였고 중앙에 왕릉의 등감을 배치하여 생명 탄생과 빛의 근원을 상징하였다. 본체는 화강암 2개의 돌을 조립하여 세움으로써 공주와 가라츠 두 지역 간 우호와 교류를 상징하였다.²⁰⁾

정례적 교류가 이어지면서 공주의 백제문화제 혹은 가라츠의 축제에 서로 참여하게 되고, 학생 교류, 벽화 제작, ‘무령왕’ 별의 등재, 사진전 개최 등이 협력 사업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되었다. 2012년에는 가라츠 측의 협조에 의하여 ‘무령왕’ 이름의 별이 등재

크협의회’라는 별도의 단체를 결성하여 지금까지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18) 금강포럼(대표 신용희)에서는 공주-가라츠 무령왕교류 15년 역사를 정리하는 사진전을 2016년에 열었다. 관련자료들이 전시회 도록인 『무령왕교류 15년』(2016)에 정리되어 있다.

19) 〈무령왕, 별과 노래와 시〉에서는 1년 간의 여러 교류 행사를 정리한 영상을 함께 보면서, 무령왕 노래 ‘니리무세마’(‘임금님의 섬’이라는 뜻)를 함께 부르고, 나태주가 지은 ‘무령왕’ 시를 같이 낭독하며, ‘백제 춤’을 함께 추는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 2016년부터는 공주 영명고등학교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20) 무령왕기념비 건립의 경과에 대해서는 윤용혁, 무령왕에의 길- 2006년 무령왕기념비의 건립』『웅진문화』19, 2006 참고.

되었으며, 이것이 인연이 되어 2014년에는 ‘공주’ 별의 등재가 다시 이루어졌다. 소행성의 발견자 사토 나오토(佐藤直人) 씨의 도움에 의한 것이었다.²¹⁾ 2017년 8월에는 문화재청에서 지원하는 여름야행 ‘무령왕별(星), 공주별을 찾아라’ 행사가 무령왕릉 일원에서 펼쳐졌다.²²⁾

공주-가라츠의 무령왕 교류에는 가카라시마 기념비 건립이 중요한 계기였다. 그리고 사업 시행에는 많은 난관이 있었다. 기념비 제작 자체의 문제 이외에 ‘무령왕 탄생지’로서의 역사적 적합성에 대한 역사 문제도 있었다. 이에 대한 학계의 의견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기념비는 ‘탄생 전승지’로 기록하였고, 이후 학계의 의견 또한 긍정적으로 정리되는 경향을 보임으로써 우려되었던 역사 문제는 야기 되지 않았다. 한일 간의 역사 문제는 민간 레벨의 교류에도 심각한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역사적 사실이 관련된 교류 사업에서는 사실 자체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먼저 거치지 않으면 안된다.²³⁾ 그리고 이에 의하여 사업의 범위 혹은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령왕 교류가 진행되면서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이벤트가 이루어졌다. 그 중의 하나는 식민지시대 공주 거주 일본인에 의하여 반출되었던 문화재의 기증이었다. 2006년 6월 25일 기념비의 제막식에 참석했던 요코하마 거주 공주회 회장 아메미야 히로스케(雨宮宏輔)는 이때의 만남이 계기가 되어 2008년에 선친이 소장하고 있던 공주 반출의 68종 328건 문화재의 기증이 이루어졌다. 아메미야 유물은 현재 충남역사박물관에 전시, 소장되고 있다.²⁴⁾

무령왕네트워크의 활동이 시작된 이후 오사카에서는 서울 송파구와 연결된 곤지네트워드가 결성되었고, 2014년에는 후쿠오카현 야메시에서 ‘무령왕을 생각하는 모임’이 발

21) 윤용혁, 「‘별에서 온’ 무령왕, 그리고 백제문화제」 『백제, 축제로 부활하다』(최석원 편), 서경문화사, 2014.

22) 공주대 공주학연구원, 무령왕국제네트워크협의회, 사)한국아마추어천문학회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천문관측(천체망원경)으로 무령왕별을 관찰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야광 별자리 열쇠고리 만들기 등 체험 행사가 마련됐다. 특히 토크 콘서트(무령왕 별이 되다), 별별 사연 소개, 국악공연을 비롯해 무령왕네트워크 회원들의 무령왕 노래 및 백제 춤 공연, 그리고 일본 가카라시마 학생들이 소-란 춤을 선보여 큰 호응을 얻었다.(<파워뉴스> 2017.8)

23) 윤용혁, 「무령왕 출생 전승에 대한 논의」 『백제문화』 32, 공주대 백제문화연구소, 2003

24)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63년만의 귀향, 아메미야 히로스케 기증유물 특별전』, 2008

족하였다. 2017년에는 동아시아린진(隣人)네트워크(대표 萱沼紀子)의 소개로, 히라카타 백제페스티벌을 주관하는 백제회(百濟の会)와의 교류가 새로 시작되었다. 모두 ‘백제’를 주제로 하는 단체이다. 시민 교류라는 특성 때문에 중국 남경과의 연계와 교류는 여전히 자리를 잡지 못하였지만, 몇 차례의 남경 방문을 통하여 그 기반을 축적하고 있는 중이다.

1500년 전 무령왕대의 동아시아는 백제가 중국과 일본을 연결하여 하나의 문화권으로 발전 시켜가는 새로운 역사의 시대였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남경-공주-큐슈-오사카를 연결하는, 말하자면 ‘무령왕 네트워크’였다. 그리고 그 1500년 전의 역사를 통하여 환황해권의 교류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다.

2) 이삼평연구회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유적 부근에는 일본 아리타(有田)의 도조(陶祖)로 칭해지는 이삼평(李參平, 1579-1656)의 기념비가 세워져 있다. 사가현 아리타에서 성금을 모아 1990년에 처음 건립한 것인데, 2016년 학봉리 도요지 가까운 동학사 입구로 새로 이전한 것이다.

원래 공주의 이삼평 기념비는 아리타 정민(町民)들이 이삼평의 은덕에 대한 보답으로 그의 ‘고향’에 건립한 것이다. 한국도자문화진흥협회의 협조를 받아 세운 기념비의 건립에 의하여 아리타와 공주 간의 활발한 도자 문화 교류가 기대 되었으나, 도리어 비문의 문구를 둘러싼 문제가 제기되어 많은 시련을 겪지 않으면 안 되었다. 문제가 된 문구는 이삼평이 ‘임진·정유의 왜란에 일본에 건너가게 되어’라는 구절이었다. ‘끌려갔다’고 고쳐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일본의 역사 왜곡과 역사 인식의 진면을 드러낸 것으로 받아들여졌다.²⁵⁾

기념비의 문구를 둘러싼 문제는 논란을 거듭하고, 언론의 보도도 이어졌다. 심지어 아리타 현지에 가서 문제 제기를 하고, 국회와 법원에 청원 혹은 제소하는 등의 방법까

25) 윤용혁, 「아리타의 도조 이삼평과 공주」 『공주, 역사문화론집』, 서경문화사, 2005; 윤용혁, 「도조 이삼평, 그리고 아리타와 공주」 『공주, 역사와 문화콘텐츠』, 공주대 출판부, 2016

지 취해졌다.²⁶⁾ 이같은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2008년 문제의 문구는 ‘건너가’가 ‘건너가 게 되어’로 수정되었다. 기념비의 건립 의도는 이삼평에 대한 ‘보은과 감사의 표시’였고, ‘국제 친선과 문화교류’의 계기를 조성하려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삼평 기념비는 ‘역사’ 문제로 생각지 않은 험한 수난을 겪게 된 것이었다. 한 가지 유의할 것은 이 기념비의 건립과 이후의 논쟁 과정에 공주에서의 지역적 입장과 역할이 거의 개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건립 과정에서 지역의 입장이 거의 배제된 때문이었다. 비문 정정의 과정을 돌아보면, 아쉬운 점이 적지 않다. 논의의 과정에서 건립 주체들과 지역의 시민, 전문가, 공무원, 이들 당사자 간의 상호 소통이 보다 충분하게, 그리고 공개적으로 이루어졌더라면 하는 것이 그 하나이다.

공주에서 민간단체로 ‘이삼평 연구회(회장 이종태)’가 결성된 것은 그 후 2013년의 일이었다. 학봉리 철화분청사기 요지로 대표되는 지역 도자문화 콘텐츠의 중요성,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이삼평 기념비의 의미에 주목하고 기념비가 원래의 건립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공주의 지역적 차원에서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만든 단체이다. 2013년 처음으로 공주에서 아리타의 도조제에 공식 참여하고, 8월 11일에는 첫 번째 이삼평 추모행사를 공주에서 가졌다. 이삼평연구회는 김해에서 열린 제19회 분청사기 축제의 참관 답사 행사를 실시하고, 2014년, 2015년, 2016년 연이어 세미나를 개최하였다.²⁷⁾ 특히 2016년 아리타 도자기 400년이 되는 해로서, 풍물단 파견에 의한 아리타 도조제 참여하고, KBS 대전 방송국에서 계룡산 철화분청을 주제로 다큐를 제작하는 계기를 조성하였다.

이삼평연구회 조직 이후 가장 중요한 일은 2016년 이삼평 기념비의 이전이었다. 공주-유성 간의 국변에 위치한 이삼평 기념비가 도로 개선 사업으로 새로운 부지를 물색하여 옮기지 않으면 안되었기 때문이다. 이삼평연구회에서는 공주에 있어서 이삼평기념비의 중요성과 문제의 복잡성을 홍보하는 한편 특히 시청 담당자들과의 적극적 의견 개진 및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통하여 새로운 입지 선정에 중요한 중개 역할을 담당하였다.

26) 당시의 관련 자료는 이풍용, 『弘益明鏡碑-일본의 역사왜곡을 중심으로』 〈자료편〉, 글담, 2005에 수록되어 있다.

27) 〈이삼평공과 분청사기에 관하여〉(2014.8.11.); 〈이삼평과 공주분청사기의 재조명〉(국회 박수현의원 주최, 2015.11.6.); 〈공주의 도자문화와 일본, 중국〉(2016.6.13.)

특히 기념비의 이전을 계기로 이삼평 공원을 조성하자는 제안이 시에 의하여 적극 수용되어 기념비는 새로 조성된 반포면 학봉리 이삼평공원으로 이전되었다. 기념비 이전 준공식에는 도자기 관련 유관 단체인 한국도자기협회 임원, 회원은 물론 아리타에서도 정장(町長)을 비롯한 유지 다수가 참석하였다.

이삼평 기념비는 1990년 건립 이후 문구를 둘러싼 역사논쟁으로 많은 상처가 있었다. 2016년 기념비 이전 문제로 어려움이 재연될 가능성이 많았지만, 새로 창립된 이삼평연구회에서 중개역을 맡음으로써, 공주시와 관련단체, 아리타 당국, 반포면 주민들이 모두 동의하는 가운데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토대를 조성하는 데 성공하였다.²⁸⁾ 역사 갈등이라는 문제는 국가 간의 문제만이 아니고 실제 지역에서 얼마든지 현실로서 당면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생산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지역은 물론 환황해권 지역 간 협력 발전의 미래와도 연결된다.

4. 21세기 ‘환황해권’의 발전을 위하여

동아시아 역사가 제국주의 침략과 이데올로기 문제로 철저히 파괴되었던 20세기의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과거의 역사에 대한 반성, 그리고 이에 기반한 화해의 노력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한 사실 관계 규명이 우선이며, 이를 토대로 전문적 논의와 정치적 측면의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중요한 현안에 대한 국가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지만, 역사 문제는 시민사회의 역량에 기반한 대화와 접근 노력이 중요하다. 역사 논쟁은 쉽게 감정적으로 전환되고 정치인들의 정치적 이해에 의하여 논지가 왜곡될 위험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위험성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은 정치외적 공간에서의 지속적 논의와 생산적 방향을 담보하는 것이다.

환황해권 동아시아 세계의 토대 구축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것은 한국의 역사교육에서 〈동아시아사〉 과목이 편성된 점이다.²⁹⁾ 자국사와 세계사라는 역사 교과과의 편성이

28) 이삼평연구회 창립 이후 기념비 소재 거주지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기울여졌고, 관련하여 2편의 석사 논문이 만들어졌다. 박미옥, 「공주 반포면 도자유적의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 공주대 문화유산대학원 석사논문, 2016; 이종태, 「국제교류 콘텐츠로서의 이삼평에 대한 연구」, 공주대 문화유산대학원 석사논문, 2017

29) 〈동아시아사〉 과목은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의하여 편성되고, 2012년부터 현장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일반화되어 있는 전제에서 생각하면, 〈동아시아사〉의 성립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일본의 교과서 문제, 중국의 동북공정과 같은 역사 갈등 극복의 현실적 대안으로서 등장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동아시아사〉 교육과정에서는 “동아시아 역사와 문화의 특징을 파악하고, 타자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필요로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동아시아사〉 수업은 다른 역사 과목보다 현저히 ‘평화지향적 성격’을 갖는다고 평가되었다.³⁰⁾ 실제 수업에 대한 반응에 있어서도 응답자의 69%가 학습을 계기로 동아시아 각국 사람들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시아사〉 학습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자국사의 객관적 인식, 문화상대주의적 관점 함양(학생)이 30.4%와 29.1%로 가장 높고, 교사의 경우 역사의 단절 극복, 민족의 편견 극복이 각 27.3%로 높은 반응을 보였다. “중국이나 일본에도 없는 과목을 우리만 가르친다고 해서 (역사 갈등이) 해소될 것 같지도 않다”는 교사의 불만도 있지만,³¹⁾ 고등학교 수업 현장에서 역사과목의 하나로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³²⁾ 환황해권 역사 갈등의 현실 속에서 한국 역사교과에 〈동아시아〉가 고등학교 선택과목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은 적극적으로 평가 받을 만하다고 생각한다.³³⁾

교과서 문제를 비롯하여 역사 인식을 둘러싼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국가라는 주체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그 논의는 쉽게 경직성을 띠게 된다. 국가를 배경으로 하는 논의를 소홀히 할 수 없지만, 다른 한편으로 시민들 간의 교류와 접촉에 의하여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혀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 레벨의 논의만이 아니고 지자체 레벨의 교류와 논의가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의하여 형성되는 상호 이해 역사 갈등을 해소하는데도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30) 김유리, 「고등학교 〈동아시아사〉에 대한 역사교사와 학생들의 인식 분석」 『역사교육』 130, 2014

31) 윤세병, 「동아시아사 수업과 평화 인식」 『동북아역사논총』 47, 2015, pp.264-272

32) 2014학년도 대입 수능에서 역사 과목별 응시자는 〈한국사〉가 42,529명, 〈동아시아사〉 36,982명, 〈세계사〉 28,772명이었다. 〈중앙일보〉 2013. 11.26(김유리, 앞의 논문, p.9에서 재인용)

33) 〈동아시아사〉에서 동아시아의 내용 범위에 대해서는 교육과정에 “오늘날의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의 영역과 그 외의 동아시아 전 지역에서 활동한 민족과 국가, 역사적 사실”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아시아사〉 교육 과정에 대한 내용은 김유리·신성곤, 「2011년 개정 〈동아시아사〉 교육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역사교육』 132, 2014 참고.

금번 세미나의 주제가 되는 ‘환황해권’은 지역간 협력을 전제로 한 동아시아 개념이라는 점에서 또 다른 의미가 있다. ‘지역간 협력’이라 하더라도 현장에서는 과거 역사문제에 당면할 소지가 적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환황해권에 있어서 역사문제는 문제에 대한 솔직한 직면과 함께, 상호 이해와 협력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두 가지 트랙을 동시에 가지고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동아시아에 있어서 역사 갈등은 지속적인 논의와 노력을 필요로 하는 상수(常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병행하여 현장에서의 다양한 상호 이해 증진과 생산적 협력이 이어질 수 있도록 구조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호 이해의 증진은 다른 한편으로 역사 갈등의 대화 노력에도 생산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역사 문제는 현재의 것이기도 하지만 미래의 일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에서 역사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사실에 직면한 역사 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객관적 인식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에서의 〈동아시아사〉 과목의 채택은 획기적인 것이며, 이 과목이 앞으로 학교 현장에서 순조롭게 정착하고 소기의 학습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환황해권의 미래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 생각한다. 아울러 학교의 정규 과목 이외에 학생들이 역사의 현장에서 함께 역사를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도 유용할 것이다. 한중일 3국의 청소년이 역사 현장을 공동 탐방하는 역사 캠프 프로그램의 제안은 이같은 차원에서의 아이디어라 할 수 있다.³⁴⁾

환황해권에 있어서 지자체간 상호 협력의 중요성은 앞으로 더욱 높아질 것이다. 지리적으로 충청남도는 환황해권의 중심에 포함되어 있지만 특히 충청남도의 역사적 정체성의 기반이라 할 백제역사는, 환황해권의 정체성을 공통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유효한 개념이다. 이러한 점에서 충청남도의 대표축제이며 한국에서 가장 오랜 근대 역사축제인 백제문화제를 환황해권 중심의 축제로 만들어가는 작업은 환황해권 협력에 있어서 충청남도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일 것이다. 본 발표에서는 구체적으로 제2기 세계대백제전의 컨셉을 이같은 ‘환황해권’ 조성에 맞추고, 2021년에 개최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아

34) 정기은은 청소년 공동 탐방의 역사 현장으로서 왕인 박사 문화전래의 길, 불교 전래의 길, 장보고 등의 예를 들고 있다. 정기은, 「동북아 문화공동체 구상과 한중일 역사·외교 분쟁」 『백산학보』 82, 2006, pp.285-287

울리 공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역사 관련 시민단체, 무령왕국제네트워크와 이삼평연구회의 사례를 통하여 지자체를 배경으로 지역의 시민들이 환황해권의 발전을 위하여 어떻게 노력할 수 있는지를 하나의 사례로서 소개 하였다.

최근 한국의 국무총리가 일본 천황의 재임 중 방한을 조심스럽게 거론한 사실이 보도되었다. 장기간 경색된 동아시아 정세 속에서, 한일 간의 관계 개선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당위성에서의 제안일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 시민사회에 이에 대한 보다 폭넓은 컨센서스가 형성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그것은 국가보다는 지자체 레벨에서의 바탕 구축이 더욱 현실적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점에서 백제를 토대로 한 충청남도,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열리는 백제문화제가 일정한 기여를 할 수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역사 갈등 ‘완화’라는 환황해권의 토대를 닦는 일은 목표를 분명히 하되, 서두르지 않고 긴 호흡으로 한걸음씩 발걸음을 옮기는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리고 지자체와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나아가는 공감 확산이 중요하다.